

1989 2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충현 암송 성경)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62-4181~5

호세아서

※ 2월호 만나에 실린 메시지는 이종윤 목사님의
새벽강단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호세아 주전 8세기 북방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남쪽 유다에
서도 예언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자기가정의 비극
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선지자이
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

호세아서 여로보암 2세때(주전 793-753)에 기록되었다(호
1:1). 여로보암 2세의 번영을 배경으로 하고 끝없이 타
락해가는 상태를 탄식하며 경고하는 내용으로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을 슬퍼하며 경고한 아모스에 반해 이스라엘
의 개인적인 신앙과 윤리의 타락을 슬퍼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최후
승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
서 이루어진 사랑이다.

주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 1 장 : 하나님은 불성실한 이스라엘까지도 사랑하신다
- 2 장 : 소망 없는 자에게 주신 희망
- 3 장 :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
- 4 장 : 우리에게 없는 것 세가지
- 5 장 : 하나님의 주된 불만 요소
- 6 장 : 계산되지 않는 회개
- 7 장 :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모습들
- 8 장 :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값
- 9 장 : 거기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 10장 : 이스라엘의 갈라진 마음
- 11장 : 하나님의 아픈 마음
- 12장 : 압박에 있는 유다
- 13장 : 한 나라의 멸망
- 14장 : 죽음의 죽음

2월의 기도 제목

1.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총현교회 되게 하옵소서
2. 이종윤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을 불드시어 능력의 사자들이 되
게 하옵소서
3. 교역자들이 영력있게 하옵소서(교역자 이름 불러가며)
4. 구역이 불붙어 교세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5. 복음은 불처럼 확산되고 천국일군은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옵
소서(24부 교회학교를 위해서)
6.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 위로를 받는 시온소가 되게 하소서
7.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27 (금)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찬송 403 성경, 호1:1-3삼.2:1

「이에 저가 가서」(1:3)

하나님의 명령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를 이 세상에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선지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가. 것처럼 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도 어긋나는(레21:13,14) 그러한 결혼을 요구하시는가.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호세아의 순종 호세아는 자기의 일생을 망치는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체없이 거리의 여인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거리의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양심의 문제요, 자존심의 문제요, 세인의 멸시를 당할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교 활동에도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성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말없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짊어지우신 십자가를 말없이 지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는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음란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악한 열매를 상징합니다.

** 고멜은 결혼하기 전에도 거리의 여인이었는데 결혼한 후에 또 남편을 떠나 여러차례 도망을 간 부정한 여인입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고멜과 같이 누추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나 그의 사랑을 저버리고 결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이 깊은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십니까?

기도 거리의 여인처럼 부정하고 누추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신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을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멜처럼 다시 결길로 가지 않도록, 깨끗한 사랑, 정결한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1:4하)

이스라엘 호세아는 음란한 거리의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당신의 하실 일을 계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뜻인데 비슷한 이름인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홀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성실한 백성을 홀으시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치적 현실화 4절 말씀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현실화 되었습니다. 예후가 아합왕을 길르앗에서 죽이고 이세벨은 사마리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후도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는 개인이나 국가를 불신자를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 불신자도 망하게 하십니다. 모택동을 들어서 장게석을 내쫓고 중국 땅에 기독교를 멸절시키셨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중국 10억의 소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중국 사람의 마음 속에 기독교도, 유교도, 불교도 없어진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공허해진 다음에 마음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 재물도 건강도 하나님이 홀으시면 무력한 자가 됩니다. 인격도 하나님이 홀으시면 비참한 인격자가 됩니다. 자녀도 가족도 홀으시면 별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엄청난 교회, 전통있는 교회도 하나님이 홀으시면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영적인 동물인 우리가 영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일상적인 삶이 흠어짐을 잊지 맙시다. 아무리 모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홀으시면 모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 날마다 이스라엘이 될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홀으시면 하루 아침에 알려지가 될 수 밖에 없는 하루살이 인생이면서도 날마다 모으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영권을 상실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 (주일)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

찬송 265 성경, 호1:4-5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1:5)

민족적 현실화 ‘이스라엘’의 예언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주전 721년에 앗시리아를 통해서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리 저리 끌려가고, 상처받고, 망하고 또 망한 백성이 되어 마지막 근대 사회에서는 나치당에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여 전 세계에 흩어지는 참상을 자아냈습니다. 활이 꺾어졌으니 권세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보복을 하시는데 자기 민족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민족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전 그러나 하나님은 즐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으시고 싸메시는 분이십니다(1:11). 다만 잠깐 고난 가운데 두심은 도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김일성이 없으면 우리는 새벽기도 안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열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도전을 주시어서 이것 때문에 더 허리를 동이고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잠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것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므로 호세아 처럼 이 예언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들이 됩니다.

******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할 것이 아니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얻게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기도하므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볼 것 뿐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여 온 세상이 어두움에 싸였으나 하나님의 도전을 기억하며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시며 이 도전을 거두지 마옵시고 맛부딪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 (월) 깨어진 사랑

찬송 440 성경. 호 1 : 6-7

「다시는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1 : 6하)

로루하마 히브리어로 ‘로’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루하마’는 ‘사랑한다. 동정한다. 애정을 쏟는다’라는 뜻입니다. ‘로루하마’라는 말은 특별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베푸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시 103 : 13),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 또는 긍휼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시 30 : 18). 시편 136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26회 사용) 했는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선택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하지 않겠다 하셨으니 이스라엘이 너무나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허무한 백성 70인 역에는 ‘로루하마’는 ‘다시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요 반드시 그들의 대적이 될 것이다’로 번역되어 있으며 영문 번역에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버리고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겠다는 강한 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사하지 않을 것이요’는 그들을 허무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 오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장로, 권사, 집사, 교사인데, 사람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루하마!’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허무한 백성을 만드시겠습니까. 내 개인, 내 민족, 내 교회가 이 이름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민족의 죄악을 보며 ‘로루하마’의 분노의 음성을 기억하고 가슴 찢으며 통곡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 주여! 이름은 신자이오나 삶은 불신자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신행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개인과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수) 모으시는 하나님

찬송 352 성경, 호 1 : 10-11, 2 : 1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1 : 11)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홀으신다’는 뜻도 있지만 ‘모은다, 꽃을 심는다, 씨를 뿌린다’는 뜻도 있습니다(2 : 23). 10, 11절에는 다시 모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자녀가 아니었는데, 다시 모아 내 자녀 삼고 내 백성 만들겠다(2 : 1)는 말씀이니 불성실한 이스라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로루하마’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대적이 되셨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저주를 완전히 물리쳐 주신다는 뜻이니 축복의 극치입니다(2 : 13-24). 이스라엘(홀으신다)에서 로루하마로, 로암미로 저주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심는다)에서 암미로, 루하마로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1 : 10-2 : 1).

옛 언약의 회복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고 옛 언약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모으실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시다. 모으시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옵시다. 자녀도 가정도 생업도 민족도 국가도 교회도 하나님이 모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번창의 복, 결합의 복, 성공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궁핍을 힘입어 회복되는 복, 이 복이 개인과 민족과 교회와 사회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 날마다 불성실하여 하나님의 홀으시는 징계의 채찍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또 참으시고 모아 주시고 회복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로루하마의 비극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사오니 루하마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 (화) 깊은 징계

찬송 353 성경. 호 1:8-9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1:9)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인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는 ‘암미’라는 칭호를 들었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시부터 있었고(출6:7, 레26:12, 27:9), 대대로 확인되었던 칭호였고(시29:11, 33:12), 유효하였던 칭호였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고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그런 선민이었었습니다(삼상12:22). 이러한 백성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불호령을 듣게 되었으니 참으로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나는 네 편이 아니 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도 미워하십니다.

징계의 심도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단계적인 깊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말이고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거두실 것을 밝히신 것이요 ‘로암미’는 두 자녀의 이름보다 더 강한 징계를 표시하는 말 씀입니다. 원문의 뜻은 ‘나는 너를 위해 있지 않다’ 또는 ‘나는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I will not be for you)라는 말입니다. 구주요, 피난처시요, 반석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아버지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 하시니 심판 중의 심판입니다.

****** 죄를 이같이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습니까? 죄를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죄를 멀리합시다. 로암미의 호칭을 듣지 맙시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므로 암미로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암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 이름은 암미인데 실상은 로암미인 우리 자신을 언약을 사서 바로 보게 하시며 마음 눈을 열고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세상 만민을 주앞으로 돌이키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목)하나님의 슬픔

찬송 348 성경. 호2 : 2-5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2 : 5하)

호세아의 비극 호세아는 떠나간 아내를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어미와 쟁론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쟁론’이란 소린내어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만 악한 행동의 중단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노력을 포함한 강한 논쟁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그 ‘어미’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호세아는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 보았지만 응답이 없자 결국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는 선언을 합니다. 호세아의 마음은 깨어졌고 실연당한 남자로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남편으로서의 슬픔을 한 없이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러한 고멜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니 곧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입니다.

고멜의 비극 고멜은 세상적인 것(떡, 물, 양털, 삼, 기름, 술들)을 더 사랑한 나머지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의 가치를 과소평가해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영원이나 진실보다는 사특하고 거짓된 세상 재미와 열락을 더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멜에게 임한 심판은 부끄러움(3상)과 곤고함(3하)과 자녀들에게 화를 물려준 것입니다(4). 세상을 사랑한 고멜의 죄과는 자녀들까지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므로 그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신5 : 9).

** 고멜처럼 영원보다 현세를 더 좋아하지는 않는지요? 떡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욕심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에 붙은 마음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부르심에 대한 무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께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차 있사오니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교만한 마음을 주의 신으로 깨우치사 순수하고 거짓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3 (금)울타리를 치시는 하나님

찬송 349 성경, 호2 : 6, 7상, 8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2 : 6 상)

호세아의 큰 사랑 ‘그러므로’는 2 장에 세번에 걸쳐 나타나는데 (6, 9, 14) 하나님께서 부득이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멜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되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된 호세아의 사랑은 창녀의 소굴로 떠나는 고멜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어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뛰어 넘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걸길로 가지 못하도록 범죄하는 길을 징계의 가시 울타리로 담을 쌓아서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죄의 길을 막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린 자식입니다.

고멜의 무지 고멜의 무지는 자기에게 준 것이 다 호세아(하나님 상징)의 것인줄 모르는 데 있었습니다(2 : 5하). 떡과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요 양털과 삼은 몸을 위한 것이며 기름과 술은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은금은 가치있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고멜은 이 모든 생필품과 문화용품을 다 호세아가 준 것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의 소유와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지가 죄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원리를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우리는 얼마나 바알을 섬겼으며 사치와 열락을 위해 사용하였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고 결심이 굳어서 죄와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담이 되어 주시고 간수해 주시고 가시 울타리로 막아 주셔서 최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때문임을 항상 명심합시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건만 우리는 항상 세상이 나로 치부케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담이 되어 주셨건만 항상 아하 내가 지혜로와 세상을 이긴다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부요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 바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2 : 7)

탕자의 비애 고멜이 못 남성을 따라갈 때 처음에는 기쁨이 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공허와 흑암 뿐이었습니다. 좌절과 낙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애통하는 회개가 필요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했습니다. 징계를 당한 이스라엘은 탄식뿐입니다. 탕자의 고백은 “내 아버지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일 뿐입니다.

죄는 철저히 ‘수치를 드러낸다’는 말씀은 깊이 숨겨 있는 수치스러운 죄악까지라도 그들이 연애하던 자 앞에 드러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징계와 심판의 철저함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 앞에서 나팔을 불어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가시담으로 막고 곡식과 포도주를 도로 찾은 것은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과 모든 것이 그의 것인줄 모르는 무지를 깨우쳐 주기위한 호세아의 사랑이 응집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가시 울타리를 쳐서 죄길로 가는 것을 막으실 뿐 아니라 소유물을 탈취하기도 하시면서 죄와 완전히 연관을 끊도록 하십니다. 죄를 철저히 끊지 못하면 뿔어진 전대가 될 것이요, 급고에는 종과 동족이 설칠 것입니다.

** 늘 빼앗기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실패와 죽음에 이르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엎으려셔도 자기 사람, 쓰러져도 자기 백성, 실패해도 자기 자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만 오면 하나님의 것이 모두 내것이 됩니다.

기도 실패로 멍들고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무릎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매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2 : 15하)

소망의 문 ‘거친 들’은 포로의 땅을 의미하고 ‘개유하다’는 말은 설득한다는 뜻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의 땅으로 끌고가서 거기서 설득하여 위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진노의 표현이라기 보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포로의 땅, 억압된 고통에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말로 위로하리라’는 원문의 뜻은 ‘마음에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지 정 의의 좌소일 뿐아니라 생명과 능력의 뿌리이므로 참 능력과 위로와 소망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므로 이루어 집니다. ‘아골 골짜기’는 해골이 굴러다니는 고통의 장소, 돌무덤으로 환란을 의미합니다(수7 : 26).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이 나타납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장소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하십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약속된 것입니다.

평화의 때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평안히 눕게 하신다 했습니다(2 : 18). 평화는 실패한 자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승리한 자에게만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승리한 사람에게 옵니다.

※※ 우상 따라가고 거짓 따라가고 남편 아닌 남자 따라가고 하나님 이닌 다른 신을 따라가는 아골 골짜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해골만 굴러 떨어지는 그곳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내모습 보지말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이리 봐도 해골 뿐이요, 저리 봐도 해골 뿐인, 소요와 어지러움과 공포뿐인 이 장막성에 무슨 소망이 있으리까마는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위만보고 걸어가오니 주여!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월) 아름다운 고백

찬송 82 성경, 호2 : 21 - 23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2 : 23)

심기운 자 ‘응한다’는 히브리어 원문은 ‘응답한다’ (사58 : 9, 함2 : 11)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크게 응답하여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흠어진 다’에서 ‘심는다’로 의미가 바뀝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이름의 변화만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재물도 인격도 세상의 친구도 다 흠어진 불행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입어 돌아오는 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기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열매가 있고 추수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유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함입니다 (사43 : 25).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고백 ‘주는 나의 하나님’ 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어 진실한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감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소하는 성도의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이야말로 ‘알파’와 ‘오메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전체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 추수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연고입니다.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된 증거입니다. 더욱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흠어 구제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약2 : 13).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아무리 생각해도 루하마가 될 수 없고 암미가 될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화) 값을 지불한 사랑

찬송 404 성경, 호3 : 1 - 5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3 : 2)

노예로 전락한 고멜 고멜의 인생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날 때부터 노예로 나는 사람이 있고 빛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으되 고멜은 스스로 노예로 전락해 버렸으니 이보다 우매한 자가 있을까요? 노예는 인육 시장으로 끌려가 옷을 벗기우고 소나 돼지 처럼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립니다.

값을 지불한 호세아 제발로 걸어 들어와도 받을까 말까한 그 누추해진 고멜을 상당한 몸 값을 지불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을 호세아는 해 냈습니다. 오직 한가지 고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값을 주고 사왔으니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도 할 말이 없건만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아내의 자리로 회복시켰습니다. 사랑은 자존심도 사회적 신분의 위신도 다 포기하고 비천해진 상대방의 위치로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구유에까지 내려 오시고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 오셨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빼앗아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 사탄의 사슬을 풀고 데려오셨습니다. (벨전 1 : 18 - 19). 구원은 인간편에서는 값없이 받은 은혜이나 하나님편에서 보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아들의 피를 값주고 이루었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 아직도 누구를 용서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는 용서 못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 : 32) 하셨습니다.

기도 항상 누추한 자리에 있는 자신들을 잊어버리고 누추한 자리에 있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함이 저희에게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 (수) 전심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찬송 362 성경.호 4 : 1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4 : 1)

세가지 없는 것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이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진실이 없습니다.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을 했습니다. 둘째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인애’라는 말은 디보션(devotion)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종교성은 있고 경건한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설교의 첫 부분인 4 장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사랑과 관계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무엇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식은 마귀도 갖고 있습니다. (롬 1 : 1).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요 4 : 7, 8),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요일 2 : 3, 4)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 기노스코(안다, 지식)는 부부간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이와같은 지식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교제, 둘이 하나가 되는 상황, 그것을 안다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는지요? 반심으로 사랑하시는지요? 적당히 의지하시는지요? 전적으로 의지하시는지요? 교활한 여자가 남편과 또 다른 남자를 속이며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손해가 나고 실패해도 좋으니 위선자가 되지 말고 진실한 자가 되십시오.

게도 말과 행동에 진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선권 문제를 바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목) 울어도 못함

찬송 343 성경, 호 4 : 2 - 10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4 : 6)

하나님의 분노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것도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오는 그 지식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반면에 그들에게는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 뿐이요 피가 피를 뒤대이는 강포 뿐이었습니다.

분노의 결과 진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낮에도 거처겠고 밤에도 거칠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넘어져도 그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환경이 파괴됩니다.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대적하게 됩니다. 질서를 잃게 됩니다. 지도성을 상실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잃게 되고 지도자의 위치를 상실합니다. 공수가 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날마다 허기집니다. 만족이 없고 날마다 불만입니다. 실족합니다. 밤낮으로 실족하니 희망이 없습니다. 국가적 재앙을 당합니다.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됩니다. 제물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케 됩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진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 정신을 차리고 그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과 교통 해야 할 우리들이니 우상 숭배의 본거지 길갈로도, 벳아웬으로도 가지 맙시다. 길갈로 벳아웬으로 가는 것은 먼 예루살렘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편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정확히, 진실하게 압시다.

기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온갖 수고를 개입치 않으면서도 주님을 위하여서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편하게만 믿음 생활을 하려는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위하여 골고다까지도 올라가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 (금) 귀를 기울이라

찬송 440 성경, 호 5 : 1 - 4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5 : 4 하)

불만 요소 인간은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가지가 없어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원하시는데로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지 못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우리는 거룩한 자비를 충당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성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불만요소는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환기 ‘들으라’ 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고 ‘깨달으라’ 는 거듭거듭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고 ‘귀를 기울이라’ 는 강하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뉘우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때 하나님은 그들을 낮게 하시며 살리실 것입니다 (5 : 15 - 6 : 2).

***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시고 교재하게 하시고 깊은 관계를 갖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기회와 특권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우리의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이 있다면 왜 저렇게 속이 없고 철이 없는가고 안타까와 할 것입니다. 남이 보기에 안타까울 만큼 고엘이 자기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남편의 품안을 떠나가는 현실을 연출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아무리 일러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두들기셔도 마음 문을 열줄 모르는 미련한 인생들을 어찌그리도 사랑하셔서 가시담 울타리 막아주시니 이 은혜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사오리까. 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성품답게 하시며 주님의 형상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 (토) 하나님을 떠난고로

찬송 315 성경, 호 5 : 5 - 7

「여호와를 찾으려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5 : 6)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지성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조금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알려지기를 원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알려지기를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타인의 눈으로부터,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지기를 원하는 불쌍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찾으려 나섰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6).

헛된 수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려 갈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못됩니다.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4).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죄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겠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찾고, 자기의 평안을 찾고, 자기의 삶의 안전을 찾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해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최악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찾을 만한 양심도,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헌신으로 응답합시다.

기도 날마다의 삶속에서 죄를 끊어버릴 생각은 멀리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보았으나 때때로는 재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에 접하면서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 주님앞에 세웁니다. 두려움에 떠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 (주일) 다른 동맹군

찬송 93 성경, 호 5 : 8 - 11, 13

「에브라임은 앓수르로 가서」(5 : 13)

이스라엘의 위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만 죽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치적으로는 다른 동맹군에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알고 계셨습니다(13). 이스라엘도 자기의 병을 보았습니다. 흔히 병은 속에서부터 자라고 상처는 밖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당시의 이스라엘의 형편이나 유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본 '병'은 정치적인 곤궁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앓수르로 갔습니다. 병을 진단한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진노의 홍수 '불같이 사르리라' (시 18 : 8) 이것은 파괴를 의미합니다. '물같이 부으리라'는 말은 그의 진노가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선은 하나님의 진노를 차고 넘치게 하는 도화선이었습니다.

****** 우리의 기도생활, 성경읽기 생활, 예배 행위, 종교 활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내 생명을 변화시키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 모든 길을 바꾸어 놓고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된다고 찬송은 부르지만 우리는 이방인 고멜과 같이 다른 것을 힘 삼고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이스라엘과 같이 앓수르를 의지하지는 않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닌 다른 동맹군이 무엇인지, 이를 알게 하시고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더 의지했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힘삼게 하옵시고 하나님 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 (월) 사자같은 하나님

찬송 212 성경, 호 5 : 12 - 14 상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은니」 (5 : 14)

죤벌레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은 죤벌레같이, 젊은 사자같이 심판으로 임하십니다. 죤벌레는 어지럽히는 일을 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하루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루살이는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어지럽히고 괴롭힙니다. 죤벌레의 특징은 옷을 상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소유물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시고 가치있는 것들을 못쓰게 만들 것입니다.

젊은 사자 죤벌레보다 더 큰 고통, 더 무서운 공포로 임하십니다. 동물 중에 가장 맹수요 사자들 중에도 젊은 사자이니 그 앞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힘으로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모든 은혜를 거두실 것입니다.

***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생활이 자꾸 흩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상하고 양심은 찢어지고 행위는 부패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죤벌레처럼 영혼과 정신과 삶을 혼미케 하십니다. 아찔아찔해서 길을 가면서도 휘청거리고 두 눈을 분명히 뜨고 살면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흔들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연고입니다. 죤벌레가 가치있는 소유물을 버리게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게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중요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도록 하고, 전도해야 할 그 엄청난 사명을 중요하게 여가지 않게 여기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의 심판입니다. 자신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안에 있는지 심판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 주님께 대한 열심도 뜨거움도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죤벌레 같은 심판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것들로 묶여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 (화) 어두움

찬송 141 성경, 호5 : 15상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5 : 15상)

어두움의 시기 좀벌레처럼 사자처럼 심판하시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더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관심, 이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죄도 크거니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죄는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노는 결국 이스라엘을 유기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내어 버려 두신다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끌려가도, 불의에 빠져 들어도 거기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뿐 더 이상 구원의 손길을 펴시지 않으십니다. 이 때가 곧 어두움의 시기인 것입니다. 어두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케하여 무서운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합니다.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손을 펴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두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시는, 별이, 해가, 달이 빛을 잃어버린 어두움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저야 할 그 어두움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이키시고 가리우시는 저주와 징계를 우리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돌리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은 어두움에 빠지게 되고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죄를 피하려고 애쓰는 우리,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물은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얼굴을 돌려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과 가장 멀어집니다. 고개를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기도 날마다 빛을 잃어하여 어두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되 강렬하게 비추시옵소서. 오 주님! 어두움의 세력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 (수) 회개

찬송 326 성경, 호5 : 15하-6 : 2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 : 1상)

속한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좀벌레처럼 심판하시던 심판을 거두시고 사자같이 물고 찢으시는 그 무서운 폭풍이 사라지고 고멜을 던주고 사오던 호세아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돌아오기 까지는 얼마나 걸려도 오래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손을 펴시는데 곧 펴십니다. ‘이를 후에 살리시고 제 3 일에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2, 3 일 내에 곧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관계 회복 회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뚤어졌는데, 깨졌는데, 잘못된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관계회복이며 이것이 곧 회개의 열매입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은 내가 피조물인 사실을 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죄의식이 민감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 어깨뼈가 탈골되어 팔을 잘라내면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 버려야 되고 땅에 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제구실을 못하게 되고 남에게 손해를 주고 쓸모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럽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남의 시선을 피할수밖에 없는, 머리를 들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서 죄를 짓고도 뻔뻔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인격화 되어버린 우리 자신, 하나님을 비인격화시켜 우상처럼 섬기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되 철저히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 우리는 어느때가 자고해서 하나님을 섬긴다하면서도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니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엉거주춤하오니 주께서 팔을 끌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6 : 3상)

생명력 호세이는 ‘이 백성이 아는 것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4 : 6, 5 : 4). 여기 ‘아는 것’은 보통 지식이 아니라 인애와 사랑이며,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라는 것은 그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관념에 머무를 수 없는 행동으로 확산되는 생명력입니다. 일편단심 ‘힘써 알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여호와를 아는 데 줄달음 치라는 말입니다. 사냥하는 자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냥물을 따라가는 것같이 뒤따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 옆으로 눈 슬쩍 돌려가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눈을 고정시키고 완전히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일편단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힘쓰되 좀 더 힘써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랑의 결여 때문입니다. 회생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충성과 사랑과 인애와 힘을 다하면 녹아지지 않을 자 없습니다. 문둥이의 썩은 발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던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한번 쏘아 보십시오. 안 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못 깨칠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내 수고를 말하지 말고 사랑의 결핍을 말하십시오.

기도 나는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남의 사랑만 요구하는 저희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에게 퍼 부여주셨던 사랑의 능력을 부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라도 녹여낼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 (금) 덧없는 인생

찬송 216 성경, 호6 : 4, 7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도다」(6 : 4하)
 변하는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더 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습니다(6 : 4). 아침 이슬은 쉬 떨어집니다. 구름과 이슬은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애’도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애를 쓰지만 지속성이 없습니다. 인간끼리의 사랑에도 지구력을 가져야 하건만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함에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신실성 결여 ‘어기다’는 말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생각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파기하고 패역하므로 신실성을 결여했습니다(6 : 7).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실과 인애가 있어야 할 ‘거기’가 행악자의 고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성이 깨어지면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나쁠 때는 하나님 사랑을 다 버리는 자신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변덕스럽게 사랑하여 하루에도 몇번 씩 사랑하는 척하다가 멀리 멀리 떠나기가 얼마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 보면서도 기쁘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쁜 사랑의 수고가 아쉬운 세상입니다. 수고한 것을 자세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으로소이다’ 고백할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더러워지지 않도록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인생이 덧 없어 아침 이슬 같은데 우리의 마음까지 정함이 없어 쉬이 모습을 변하는 구름과 같아오니 주님 앞에 항상 패역한 백성이 되나이다. 반석같은 사랑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7:2)

지도자의 죄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세겜 길은 ‘도피성의 길’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었고 또한 북쪽 이스라엘의 경건한 성도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쉬어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죄 죄를 덮으려는 속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담은 이브에게 핑계했고 이브는 뱀에게 전가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도 비극이지만 그 보다 더한 비극은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악인’은 멸하고 ‘남은 자’는 구원할 것입니다. 알갱이는 곡간에 들어가고 죽정이는 불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악, 가증과 거짓을 기억하셨고(6:8-10), 그 모든 악은 여호와의 목전에 있었습니다(7:2).

*** 토설치 않고는 여름 가뭄의 마름같은 괴로운 죄를 자복하지 않고 핑계하고 전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께서는 자복하기까지 그의 강한 손으로 주야로 누를 것입니다. 내 뼈가 쇠하여 종일 신음하고 구로할 것입니다. 죄를 자연시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속히 토해내면 회복도 빠를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 중 가장 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햇빛 난 다음에 비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범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새 마음, 새 뜻, 새 인격이 되어서 지금까지 못하던 위대한 말, 화평, 사랑, 진실, 참이라고 하는 새 방언, 새 말을 사용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기도 숨길 수 없는 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인간힘을 쓰다가 인격이 파괴되는 줄도 모르고 더럽고 누추한 말,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저희들에게 새 마음, 새 뜻, 새 인격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 만드는 자에게 달겨진 화덕과 같도다」(7 : 4)

화덕 같은 죄 3-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을 4 가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화덕같은 죄라 했습니다. 간음하는 자가 마치 화덕과 같이 달아 올라서 죄를 거침없이 짓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적 음란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덕에 모든 것이 타버리듯이 불처럼 일어난 정욕은 자신을 태우고 가정을 태우고 이웃을 태우고 국가와 민족을 파멸케 합니다. 5-7 에는 정치가들이 열락과 명예심에 도취되어 화덕과 같이 왕들을 얹으려 지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덕 속에 들어간 것이 무엇이 분별이 되겠습니까. 재판장은 공의를 잃어버리고 왕도 공평을 상실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 왕과 방백들은 독재로서 불법을 행하고 줄도들은 왕과 방백을 기쁘게 하려고 아침과 거짓으로 서로 다투어 일어나는 때, 이 때는 지혜자는 잠잠하고 악인들의 소리는 날로 높아지는 때입니다. 육적인 간음도 용납할 수 없는 죄인데 하물며 영적인 간음으로 눈이 어두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7 : 7하). 오히려 저희는 엎드리어 기다리며 우물쭈물 넘어가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7 : 6). 소경이 꽃을 만져도 색깔을 구별 못하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으나 계시의 중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 불같이 일어난 정욕과 명예욕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처리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눈을 다스리고 육신을 다스려서 죄를 멀리 하십시오. 특히 이성의 유혹을 멀리 하십시오. 음녀를 떠나십시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하셨습니다(잠 23 : 27).**

기도 꽃을 보고 냄새는 맡으나 색깔을 구별 못하는 색맹과 같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중심을 살피지 못하는 영맹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욕정을 멀리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 (월) 병 중의 병

찬송 530 성경. 호7 : 8-10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7 : 10)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은 영어로 후렛 케이크, 납작한 케익입니다. 고운 가루로 잘 구어 익혀서 소제의 예물로 바치는 것입니다(레2 : 4, 5). 뒤집지 않은 전병은 반쪽만 구어진 전병을 말합니다. 한 쪽은 구어지고 한쪽은 구어지지 않았으니 한 쪽은 먹을만하고 맛이 있어 보이고 쓸만합니다. 그러나 한 쪽이 구어지지 않았으므로 입에 넣어 보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차라리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으면 입에 넣지나 않았겠는데 먹을만해 보여 입에 넣고 보니 먹을 수가 없어 토해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방과 혼합되니 한 쪽은 이스라엘 같아서 쓸만한 것 같고 한쪽은 이방이어서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방에 혼합되었으니 결국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잡되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타락시킨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병 이스라엘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구원함을 입었겠지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토해 내친바 되어 이방의 노예가 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으니(7 : 9) 하나님께 돌아올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7 : 10 하). 병 중의 병은 병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 하나님 앞에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에 쓸모있는 일군 같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같은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서 물리치시는 자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 잘 익어서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제물이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기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하여도 하나님앞에 불충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니 병중의 병이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사 자신의 모습을 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7 : 13)

어리석은 비둘기 비둘기는 성경에서 성령과 아름다운 것,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동물 중 가장 어리석고 무감각한 동물이 비둘기입니다. 속임을 당하고도 대항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릇 찾은 길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구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애 굶과 앓수르로 구원을 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 슬피부르짖기도 하고 찾기도 하였습니다(14).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 생활의 도구, 방편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구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 병중의 병은 착각의 병입니다. 착각은 아닌 것을 기라고 생각하므로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착각들이 우리를 혼미케 합니까? 위선과 가증으로 자기 배부를 것을 위해 모이고 하나님을 마치 무당이 굿을 하듯 주문을 외우며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설에 나오는 금도깨비, 금방망이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목적과 이기심을 위해 사용하는 불쌍한 신앙인이 되지말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있는 백성이 되시어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가장 열심있는 삶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착각에서 돌아키고 밝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 보십시오.

기도 무엇을 하든지 오직 여호와만을 존귀케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자녀를 키워도 교회를 부흥케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게 하옵소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7 : 15 하)

속이는 활 ‘속이는 활’이란 맞춰야 하는 과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활은 무용한 것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활을 잡아다녀 적을 쏘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활을 자기 가슴에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수를 잡으려고 승리의 화살을 날리는 줄 알았더니 자신이 죽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무용한 것에서 지나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 이스라엘은 돌아오기는 하지만 높으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이 자신을 멸망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빗나간 화살과 같이 맞추어야 할 과녁을 빗나가서 달려가되 바알에게까지, 앗수르와 애굽에까지 달려갔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사게 된 것입니다. 무기를 의지하는 자는 무기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마 26 : 52)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마병과 앗수르의 기병을 의지하나 하나님께서 새 처럼 떨어뜨리고 징계할 것입니다.

**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원수를 갚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께 돌아올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되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만이 은혜가 있고 거기에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야 살 길이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나의 심령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귀의해서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우리는 날마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화살을 돌려대는 자들이 아니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을 통촉하시고 사랑과 감사와 화평과 희락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게 하옵시고 앗수르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 (목) 심은 바람 거둔 광풍

찬송 461 성경, 호 8 : 1-7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8 : 7)

언약 파기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것으로 간단한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죄를 또 한가지 더 범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대상을 바로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잠언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었다’는 말씀은 행한 일과 일어나는 일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람을 심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의미한 종교를 심었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실상은 무의미한 종교를 심었습니다.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빛도 없는 종교 생활을 그들은 습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광풍같이 임합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열심히 심었으나 줄기가 없고 열매 없는 이삭과 같아서 아무 소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득을 바라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일한 댓가가 없으니 얼마나 쓰라립니까?

****** 무서운 광풍이 계속 불고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이 해결되지 않은 연고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업, 사단, 정치, 지도자, 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속히 뽑으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도 없는 종교생활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위선과 가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기도 악한 습관이 항상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여 열심히 무언가 해 보지만 오히려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은 아닌지 주님이 살피 주시고 무의미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백의 임금의 지워진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8 : 10)

두가지 죄 이스라엘이 불경건한 앗수르와 동맹을 맺고 견고한 성을 쌓는 죄를 범했으나 이 죄악을 범한 원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말씀은 귀찮게 여겼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또 한가지 죄는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잊어버렸다는 말씀은 부인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참 신이 누구인지를 잊는데 있지는 않았읍니다. 그들은 여호와만이 참 신인줄을 알고 있었읍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완전히 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역사,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응 애굽으로 다시 보낸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 되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종의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오직 일과 굴종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고을을 만들고 전각을 짓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순간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하는 자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행일치는 기독교 윤리상 매우 중요한 것이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신행일치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염려 근심 속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의 통치하심에 순복하십시오. 이것이 신행일치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 담너머 불 보듯이 환한 사실도 자칫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이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저희들이옵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 (토) 새잡이

찬송 265 성경, 호 9 : 1 - 9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9 : 6)

열매 없는 추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큰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보다 멀리 멀리 떠났습니다. 생명의 길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악한 자에게 던지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수, 사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성한 물질, 풍성한 추수물만 있으면 기쁨은 더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던 타작 마당, 새 포도주, 술틀에 의해 길리움을 받지 못하고 여호와의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추수의 축복은 끝나고, 열매를 거두는 줄 알았는데 탈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사42:24).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형벌을 당했습니다(호9:3).

넘어진 파숫군 선지자는 어리석고 미쳐서 파숫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물에서 건져 내어야 할 백성들을 오히려 새잡는 자의 그물이 되어서 새를 잡듯 모든 행위로 백성들을 올가미에 걸어넣었으니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지도자를 잘 만난 백성이 행복한 백성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환이 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서 원한을 품는 원수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증거입니다.

******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원수가 손에 결박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술틀은 무엇인가, 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인가, 풍성한 소출을 얻지 못하고 탈취를 당하고 있는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위치는 하나님의 품인가, 애굽의 적지인가, 나는 선지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거쳐 넘어지게 하는 거침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빈손으로 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얻은 줄 알지만 하나님이 탈취해 가시니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공활을 베푸시어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신줄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 가리니」 (9 : 11)

뜨거운 열정 ‘만나다’ 는 말은 attain to 또는 find로 번역 되는 말로 그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비록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라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며 찾다가 드디어 얻어낸 것을 말합니다 (신32 : 10). 광야는 거친 모래 바람, 뜨거운 햇볕에 목마르고 탈진이 되기 쉬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찾고 찾다가 포도를 찾아낸다는 것은 생명이 소생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이와같이도 이스라엘을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15). 그러나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의 열화와 같은 사랑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혼돈 하나님과 그와같은 간절한 흠모의 사랑을 입었건만 배역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듣지 않은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새같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죄를 범하면 혼돈이 옵니다.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구하기는 열심히 구하는데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열심히 찾기는 하는데 망할 것만 찾고 있습니다. 유산할 것과 젖없는 유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중의 하나는 기도의 혼란입니다.

**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나와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영권이 흔들리면 물건도 흔들립니다. 영권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기도인가, 이웃을 위한 기도인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무화과의 첫 열매를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기도 주님께 대한 열망을 주시고 이웃에 대한 열심을 주시옵소서.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영혼이 혼미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생명이 소생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 (월) 거짓된 열매

찬송 424 성경, 호 10 : 1 - 3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10:2)

들포도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포도원이요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 맺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맺은 열매가 타락한 열매요, 거짓된 열매요, 참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될수록 더 많은 제단과 더 많은 주상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상도 세우고 제단도 쌓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므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 마음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은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연고라 했습니다. '두 마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찰라크'라 했고 영어성경은 '스무스'(미끄러지다) '오일리'(기름을 치다) '슬리크'(매끄럽다)로 표현되었습니다. 갈라진 마음을 말합니다. 일찌기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내 생애의 중심이요 목표요 목적이요 모든 의미로 삼아 하나님 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선자, 가증한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개인의 영화나 유익을 위해서만 이용하고 있는 않은지? 말은 기름을 쳐놓은 것처럼 번드르한데 행동이 따라 가지 못하는 위선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두 마음으로 갈라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 방해를 받지 않는지 기도해 봅시다.

기도 차든지 답든지 하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항상 두 마음을 품어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행일치의 삶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 (화) 의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

찬송 337 성경, 호 10 : 12 - 15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0 : 12 하)

제3자의 개입 호세아의 전체의 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길갈과 벳아웬으로 가서 불신앙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멜의 죄는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따라가 호세아에게 불신실한 데 있습니다. 결혼 관계는 그 성격상 제3자의 개입을 허락치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성립되어야지 거기에 제3자가 개입이 되면 그 결혼은 이미 깨어진 것이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신뢰하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부부의 대의를 지키기로 서약하는 것이 결혼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제3의 것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요 언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참 구원의 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첫 단계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진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결실이 있습니다. 세상 염려에 싸였던 마음, 정과 욕에 사로잡혔던 삶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말은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교사가 되어 참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풍성하고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 묵은 땅, 묵은 양심, 타락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것을 갈아엎읍시다. 자기 중심적인 고집통, 다져진 옛 습관을 갈아엎읍시다. 시기 질투 원망 낙심 좌절의 마음밭을 갈아엎읍시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부어주셔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의의 열매, 긍휼의 열매를 맺읍시다. 악을 밟갈아 죄를 거두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선을 밟갈아 영생을 거둡시다.

기도 길바닥 같이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사 물먹은 동산 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기를 단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기를 전갈을 보듯하게 하옵소서. 낙심을 모르는 열심을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